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경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조속한 복구 지시

✎ 황원식 기자 | ⓒ 승인 2025.07.24 18:52

- 공사의 모든 역량 투입 피해 농민 하루빨리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 복구작업 조속히 마무리 향후 영농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왼쪽에서 첫 번째 손영식 본부장, 네 번째 김인중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사장은 24일 경남지역본부 소관의 산청군 청현배수장과 울현저수지를 직접 방문해 피해현황과 복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산청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누적강우량 794mm, 시간당 최대 9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으로,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파손, 인명피해 등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청군과 인접한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피해조사와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김 사장은 이날 점검에서 “청현배수장과 율현저수지 등 농업 기반시설의 기능을 조속히 복구해 본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피해 농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청현배수장은 57헥타르의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시설이며, 율현저수지는 총저수량 2,376천 톤, 수혜면적 465헥타르에 달하는 대형 저수지로, 산청 일대 영농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손영식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은 “향후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한 추가 피해 방지책도 함께 마련 중”이라며 “복구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향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각지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 중이며, 피해지역별 맞춤형 복구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황원식 기자 hws321@newsgn.com